

만주 망명 11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 고산의 땅,

만주로의 여정과  
독립의 길

2021.08.13 (금)

— 2022.05.31 (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의열관 석주홀

## **발행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 **총괄·기획**

한준호·김주현

## **편집**

강마리·조원빈

## **발행일**

2021년 8월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주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독립기념관길 2

전화 | 054-820-2612

## 전시회를 열며

올해는 만주 망명 1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910년 나라가 무너지자 경북 독립운동가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멀고도 낯선 땅, 만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고향에서 누리던 모든 특권을 버리고, 가족과 문종을 이끌며 돌아올 기약 없는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풍토병, 굶주림 속에서도 경북인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길러 일제와 맞서 싸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험난하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곁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며 희생을 마다 하지 않은 가족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전 ‘고난의 땅, 만주로의 여정과 독립의 길’에서는 망명 일기·회고록 등을 통해 경북인들의 만주 항일투쟁과 그 가족들의 삶을 살펴보며 만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 이로써 기억 속에 잊혀진 땅 만주에서의 고단했던 독립운동과 남겨진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1911, 만주로의 여정

나라를 빼앗기자 경북 독립운동가들은 서간도 땅을 가장 적합한 독립운동 기지로 선정하고, 일제의 감시를 피해 만주로 향했다. 망명 인원은 1911년에만 2,500명이 넘었고, 1920년대에는 수만 명이나 될 정도였다. 이들은 살 에이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김천이나 추풍령까지 걸어가 경부선 열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 다시 기차로 신의주까지 갔다. 그리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걸어서 독립운동 기지 개척지인 길림성 유하현에 도착하였다.

## 만주 망명길

---

### 김대락

안동 → 김천 → 서울 → 의주 → 신의주 → 단동 →  
횡도천 → 삼원포

---

### 이상룡

안동 → 상주 → 추풍령 → 서울 → 신의주 → 단동 →  
관전성 → 태평성 → 횡도천 → 삼원포

---

### 허 은

구미 → 추풍령 → 서울 → 신의주 → 압록강(뱃길) →  
환인현 → 통화현 → 유하현

---

### 황의영

울진 → 영덕(영해) → 영천 → 대구 → 서울 → 평양 →  
신의주 → 압록강(뱃길) → 단동 → 환인현

---

### 이승희

성주 → 부산 → 블라디보스토크

---



## 경북의 대표적인 망명 집안

구미	임은허씨	영덕	무안박씨·함양박씨
상주	진주강씨	영양	한양조씨
성주	성산이씨	울진	경주이씨·평해황씨
안동	고성이씨·의성김씨·전주류씨·진성이씨·풍산류씨·흥해배씨		

## 마지막 종착지 신의주

1911년 1월 7일, 바람이 불다  
식구들을 이끌고 걸어서 신의주로 향했다. 가는 데마다 묻고  
물으면서 산길을 질러갔다. 모래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대낮  
인데도 음산하고 흠비가 내려 손발이 추위에 얼어 거의 견딜  
수 없을 지경이다.

김대락, 『백하일기』



신의주역

## 국경 압록강을 건너며

신의주 손병사 집에서 이틀 묵는 동안 만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미진한 것들을 보충했다. 돛단배 네 척을 구하고,  
사공은 중국인들이었다. 압록강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육로로  
가는 것보다 수월하고 안전하다고 했다. 강에 떠 있으면 일본  
순사들과 마주칠 일도 없으니까.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압록강을 건너는  
이주한인들



## 일제의 치밀한 검문

1911년 2월 1일

강을 따라 수백 리에 걸친 우리쪽 국경에 일인이 거의 1백 보마다 한 군데씩 초소를 설치하고는 도강하여 왕래하는 사람을 엄밀히 수사하고 있다. 비록 검역을 핑계하고 있으나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와 교섭하는 일이 있을까 의심해서이다.

이상룡, 『석주유고』



서간도로 이주하는 한인들이  
검문을 받는 모습

## 국경을 넘어 첫 도착지 단동

1912년 2월 4일

기차역으로부터 현에 이르기까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이끌고 오는 사람으로 도로가 가득 매워져 서로 이어져서 끊이지 않았다. 모두가 한인으로 서간도로 이주하고자 함이었다. 태반이 영남인이었고, 관동인과 호서·호남인 또한 많았다.

장석영, 『요좌기행』

단동현역



# 만주 벌판에서의 고단하고 험난한 삶

1911년 도착한 만주는 잡초 무성한 돌밭과 질퍽한 습지뿐인 황무지였다. 이들은 가장 먼저 혹독한 추위에 맞서 토굴 같은 집을 짓고, 먹고살기 위해 생전 해본 적 없는 농사일을 해야 했다. 경북인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마적의 습격으로 인한 위험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만주에서의 첫 시작, 혹독한 추위

1911년 1월 27일, 눈 이곳은 한대 지역에 가까운데다 눈 추위까지 덮쳤다. 화로를 끼고 냉기를 쫓아도 점점 스스로 견디기 어려워진다.

김대락, 『백하일기』



이주한인들의  
거주지

고향에서는 두꺼운 솜옷을 모르고 살던 우리가 몸에 입을 흘가지 몇 겹으로는 도저히 그런 추위를 막아낼 수 없었다. 아래 윗니가 연방 방아질을 하였고, 손발은 얼어서 제 감각을 잃었다. 고향을 떠나 만주 벌판에서 추위와 싸우는 것으로부터 첫 고생이 시작되었다. 여북하면 조모께서는 ‘고놈의 날씨, 왜놈보다 더 독하다’ 했겠는가.

이해동, 『만주생활 77년』

## 무서운 식량난

고향에서는 양반이라고 말고삐 잡고 경향간 내왕이나 하며 글 읽던 분들이 생전 해 보지도 않고 듣거나 본 적도 없는 화전 농사를 직접 하자니 마음대로 잘될 리가 없었다. 게다가 몸은 고달프기 짝이 없었다. **그해 가을에 거둬들인 식량은 겨우 가을 한 철 먹고 나니 다 떨어졌다.** 다음 농사지을 때까지 지낼 일이 막막했다.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이주한인들의 추수 모습

아버지는 청년의 혈기로 많은 식구를 데리고 만주로 망명해 왔으나, 조선에서 가져온 재산도 별로 없고 생활난을 해결하기가 참으로 힘겨웠다. **그중에도 양식이 제일 시급하였다.** 가을에 갱기로 하고 중국인 부잣집에서 좁쌀을 껴서 먹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고향에서 농사일을 많이 해보지도 못한 데다 노동력이라야 아버지와 숙부 둘인데 이국땅에 처음 와서 살자니 모든 것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첫째 농사는 중국인 지주집 소작으로 시작하였다.

이해동, 『만주생활 77년』

## 토굴 같은 움막집

1911년 1월 9일, 맑음

두고 온 짐꾸러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누워도 요이불이 없고, 문 없는 방이라 밤을 지내기 어렵다. 가져온 돈을 털어 가져다 도구와 가마솥, 그릇 약간을 사서 새로운 거처에서 지낼 계책을 대략이나마 갖추었다.

김대락, 『백하일기』

여기저기 물어서 왕산택(허위)부터 찾아 들어갔다. 고향에서는 큰 기와집에서 종 부리고 벼슬하며 사시던 분인데, 막상 뵈고 보니 사시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다. 산비탈 토굴 같은 집에서 방 두 칸 겨우 마련하여 이 방 저 방에 무리지어 거처하고 계셨다.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유하현의 움막집



## 수토병과 풍토병, 그리고 죽음

그해 오뉴월이 되자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발병했다. ‘수토병’이라고도 하고 ‘만주열’이라고도 했다. **애 어른 할 것 없이 많이 죽었다.** 나도 그 병에 걸려 석 달을 앓았다. 눈만 떴지 송장이나 다름없이 누워만 지냈는데 그래도 용케 살아났다.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풍토병은 우리 집 식구 세 명의 목숨을 앗아 갔는데, 처음으로 숙부가 죽게 되었다. 20세 청년으로 앞길이 천리같은데 생활이 곤란하다 보니 의사 한 번 데려다 보이지 못했으며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이국의 혼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불행은 끝이 없었다. **숙부가 사망한 지 1년도 채 못되어 두 고모가 선후로 목숨을 잃었다.** 그때 나이 겨우 십 여세 밖에 안 되는 꽃다운 소녀였는데 긴 인생을 이렇게 빨리 가고 말았으니 온 집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해동, 『만주생활 77년』



# 만주 독립운동 기지건설과 항일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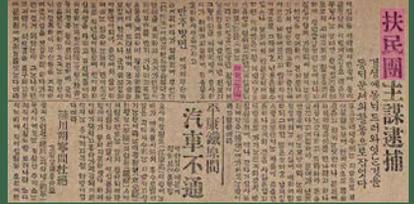
## 경학사

마침내 남만주 은양보에서 여러 사람의 열렬한 마음을 융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조직하고, **경학사**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인명을 보호하고 살리려는 것뿐만이 아니고, 민지民智를 개발하려는 차원이었다.

이상룡, 「경학사 취지서」



## 부민단



부민단 단장 허혁의 보도기사  
(매일신보 1922년 7월 29일자)

#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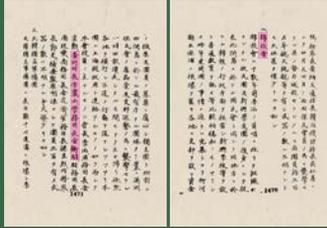
## 신흥강습소



이원태, 『배달족역대강역형세도』

# 1912

## 한족회



한족회에 관한 일제 문건

## 3.1운동



대한독립선언서

# 1914

## 백서농장



독립군 영농 모습

# 1919

## 서로군징서

서간도에서 이상룡씨를  
독판으로 여준·이탁을  
부독판으로 이장녕·김  
동삼 기타 제인을 망라  
하여 (서로) 군정서를 조직  
하는데 나를 법무사장에  
추임하였다 한다.

김응섭, 『77년 회고록』

西間島의 李相龍(石村)氏는 督辦으로 呂運平(時令) 李鐸(山淵)을 副督辦으로 李章寧(金東)과 其他 諸人을 參議로 하여 軍政署를 組織하는데 나를 法務局長으로 推任하였다. 本來 西間島는 訪問하여 已던 것이니 내 官廳을 思호할 만하고 軍政署의 委員에 任命한 것은 高宗 皇帝의 恩을 가졌어 隣近하는 次로 日失의 恩寵을 받아 報호하는 方은 奪奪의 軍政署本部를 樞回縣으로 李天門을 領率하여 陞官山縣을 設호하여 入籍을 許하였다.

## 대한통의부



대한통의부 보도기사  
(동아일보 1923년 1월 2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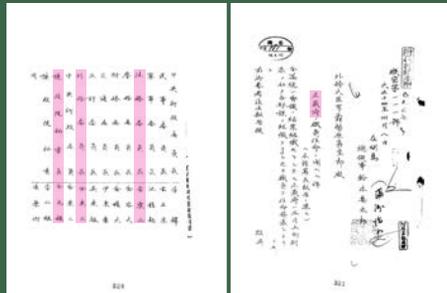
## 대한민국



# 1922

# 1924

## 정의부



정의부 조직에 관한 일제 기록

##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룡 내각 보도기사  
(독립신문 1925년 10월 21일자)

## 광복



이상룡 유해 봉환 보도기사  
(한겨레 1990년 10월 12일자)

# 1925

# 1936

# 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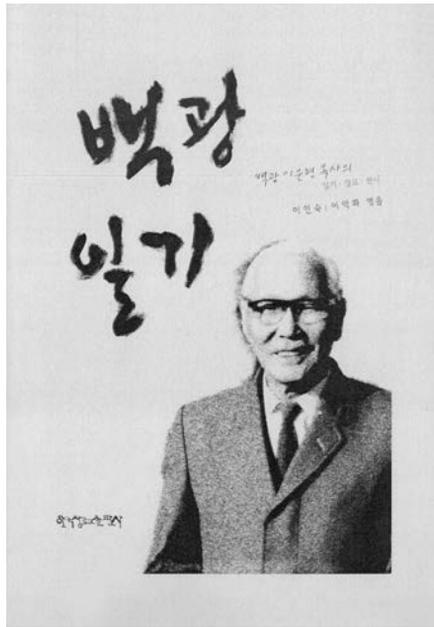
## 동북항일연군



허형식 기념비(경안현)

## 광복





1919년 2월 20일

나도 서로군정서 특파원으로 기밀서류들을 동봉하나 나와 가족들의 안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극비에 조용히 추진해야 하였다.

1919년 3월 10일

만세 후 나는 다시 출발하여 봉천을 거쳐 해룡현에 가서 수십 일 유하였다. 만세사건 후 어느 기간 동안 잠복하라는 상부의 권고가 있었다.

1919년 4월 12일

나는 다시 백부(이상룡)의 밀령을 받고 만주를 출발하여 15일에 경성에 도착하였다. 인사동 춘산의원에 유숙하고 (서로)군정서 포고문 수백 장을 전래하여 친구들에게 분배하였다.

이운형, 『백광일기』

# 한국 근대의 여걸, 남자현

하얼빈 남자현 묘비  
『독립혈사』

우리 독립운동사에도 찬연히 빛나는 존재인 남자현(南慈賢),

1872-1933, 영랑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여걸이었다. 그는 경상도 사람으로 일찍이 그의 남편이 의병으로 죽자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고 어린 유복자를 시부모에게 맡기고 독립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일함에 있어 매우 열성적이어서 짚신감발로 추운 날 더운 날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했는데 특히 여성 계몽에 정열을 쏟았다.

그는 열심이었고 부녀자들이 모이면 열심히 현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며 우리의 이 비참한 망국의 설움과 그 멍에를 벗으려면 남자뿐 아니라 **우리 여자들도 남편을 돕고 아들을 도와 독립운동에 참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글도 배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복영, 『민들레의 비상』

# 독립운동가 가족의 삶, 그리고 남겨진 이야기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이상룡李相龍, 1858-1932, 안동은 1911년 일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한 후 만주 독립운동계를 지도하였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으로 추대된 그는 독립운동계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다가 1932년 만주에서 순국하였다.

## 임청각 3대 종부



1990년 이상룡  
유해 봉환식장에서  
헌화하는 허은



김동삼金東三, 1878-1937, 안동은 1907년 협동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만주 독립운동 기지건설, 국민대표회의 의장, 민족 유일당운동 등 평생을 독립운동계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다가 하얼빈에서 체포, 1937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1989년 7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시아버지 김동삼 묘소를 참배하는 이해동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김동삼에게 보내기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사진



# 리어카 장수가 된 명가의 주손



강남호姜南鎬, 1894-1950, 상주는 석주 이상룡의 사위로 1911년 일가를 데리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안도현 내도산에서 독립군 병영지를 물색하였으며, 1924년 한족노동당에서 활동하였다.



1942년 강남호 일가가 중국에서 촬영한 가족사진



김정묵金正默, 1888-1944, 구미은 1911년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경상도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북경·만주·상해 등지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펼치다 1944년 북경에서 순국하였다.



김정묵 가족사진



권기일 權奇鎰, 1886-1920, 안동은 1912년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만주 한인사회의 안정화에 힘쓰는 한편, 1919년 한족회 구정區正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신흥무관학교 근처 옥수수밭에서 일본군에 의해 순국하였다.



리어카 장수가 된 권형순의 잡지 기사  
(권기일의 아들 권형순이 생계를 위해 리어카를 끌며  
간장장수가 된 사연을 소개한 기사 『신동아』 1969. 8)



권기일 가족사진

12살 소녀  
허로자의  
카자흐스탄  
강제 이주

러시아

카자흐스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가다가 짐차 세우면  
분간(화장실)도 가고 분간 갔다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차에 올라 매달리매 죽는 것도 많구  
물도 깨끗지 못한 물을 먹어서 앓아 죽는 것도 많구  
길에서 죽는 것도 많구”



허학(許學, 1887-1940, 구미)은 왕산 허위의 장남이자 허로자의 아버지이다. 1907년 아버지 허위와 함께 의병에 참여한 후 1909년 만주로 망명하였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그는 1925년 신민부 참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37년 허학은 딸 허로자 등 가족과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 부고 訃告

# 만주에서 스러지다



정훈모 鄭燾謨, 1888-1939, 예천은 1914년 만주로 망명하여 서로 군정서에서 활동하였다. 1939년 러시아에서 삼강성 가목사시 佳木斯市로 귀환하던 중 일만日滿 연합군과 교전하다가 부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고문으로 병보석되었으나 가목사시 삼남여관에서 순국하였다.



정훈모의 사망을 예천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전보



삼남여관 앞에서 찍은 사진 (앞줄 왼쪽이 아들 정진원, 뒷줄 중앙이 삼남여관 주인 권맹석)

고향의 땅,  
만주로의 여정과 독립의 길